

하동 청소년 포교 위한 힘찬 발돋움

쌍계총림 쌍계사 2월 21일 중고등학생회 창립

쌍계총림 쌍계사가 청소년 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쌍계사는 2월 21일 경내 팔영루에서 중·고등학생 학생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흔히 산중에 있는 사찰은 어린이와 청소년 법회가 조건상 쉽지 않다는 이미지가 심상이다. 하지만 경남 하동 깊은 산 중에 위치한 쌍계사에서 개최된 창립법회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청소년 포교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쌍계사 팔영루에서 개최된 창립법회에는 하동군, 화개중, 하동여고, 하동중앙중, 하동중 등 하동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 50여명이 자리했다. 여색한 것도 잠시 한글 반야심경과 삼귀의 그리고 스님께 삼배를 올리며 법을 청했다.

당시 주지 원허 스님은 “청소년기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며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속담처럼 꾸준히 앞으로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앞으로 법회가 기대가 되며 또래 불자 도반들을 만나 기쁘다고 말했다.

김희왕 학생(하동여고1)은 “설날에 세배를 드리기 위해 스님을 뵈었던 적이 있었는데 친근하고 편하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 참가 의지가 생겼다”며 “그동안 불자 친구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학부모 신뢰 바탕으로 결집

문화통한 허물없는 소통으로

지역 청소년 50명 참여 '눈길'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

박주안 학생회 회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앞으로 학생회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한달에 한번 한문학당을 열어 한문 수업을 진행하며 영어 원어민 강사를 초대해 전문 영어 강의도 계획 중이다.

청소년 포교 성과에 대해 원허 스님은 젊은 40~50대 불자 포교가 우선적으로



쌍계총림 쌍계사는 2월 21일 중·고등청소년회를 새로 구성하고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5년 쌍계사 주지로 임명된 원허 스님은 20년 동안 사라졌던 신도회를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합창단을 새롭게 모집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권유하며 불자들이 쌍계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원허 스님은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은 불자인 학부모님들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새롭게 만든 신도회와 합창단 구성원들이 학부모로서 자녀를 믿고 보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허물 없는 소통”을 주요 방법으로 제시했다. 쌍계사는 놀이 및 연예인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하동 지역

의 학생들을 위해 가수 ‘아웃사이드’를 초청하고 공연을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오는 3월에는 연예인 김제동을 초청해 토크쇼 ‘친구가 되어줘’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장학금 전달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과 소통했다.

원허 스님은 “하동 지역에는 청소년 2000여명이 현재 있다. 앞으로 법회를 찾는 학생들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도들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로 포교에 앞장 설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축서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

2월 24일, 대웅전 상량식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 축서암(도감 세봉)이 문화포교도량을 발원하며 불사를 진행 중이다.

축서암은 2월 24일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및 사부대중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축서암은 산문 밖에 위치한 암자로 송림(松林)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축서암측은 지역민 및 일반 불자가 힘을 얻는 문화 공간 도량을 목표로 이날 진행된 상량식이 그 시작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축서암은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채 2채를 전통 목조 건물로

불사할 계획이며, 입구에는 회관을 지어 차문화 강의 및 다양한 문화 활동을 아울러 진행한다. 축서암 뒷산에는 차나무를 심고 녹차와 연차도 직접 재배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문화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배 스님은 “축서암은 통도사 산문 밖 외진 곳에 위치해 한동안 포교 활동도 어렵고 폐허와 같은 시설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축서암 불사도 감 세봉 스님의 원력으로 훌륭한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축서암 대웅전 규모는 109㎡이며 낙성식은 봉축을 맞아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문화포교도량을 발원한 통도사 축서암은 대웅전 상량식을 2월 24일 봉행했다.

“기도 원력으로 포교 펼치겠다”

김해 바라밀선원, 21일 천일기도 회향

포교를 위해 천일기도에 나섰던 김해 바라밀선원 주지 인혜 스님이 2월 21일 ‘천일관음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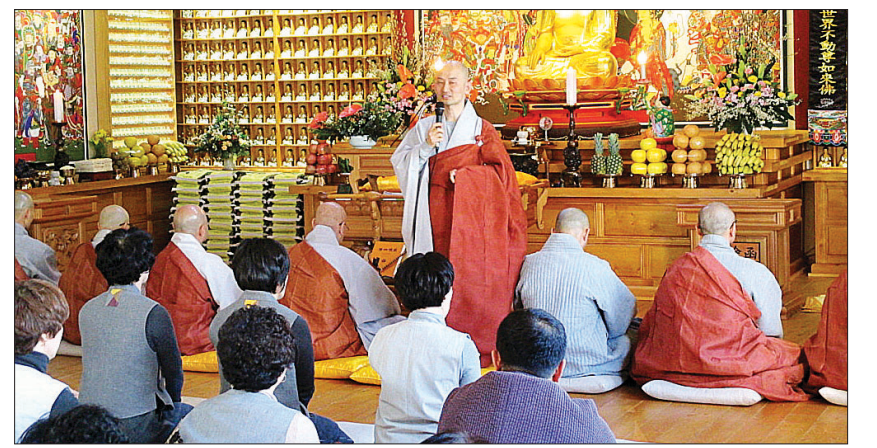
조실 지안 스님, 주지 인혜 스님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가한 천일기도 회향법회는 지안 스님 법문, 주지 인혜 스님 인사말, 지역 주민을 위한 자비의 기도, 사부대중을 위한 자비의 기도, 불교를 위한 마음을 일으키고 천일기도를 회향하는 동안 하루

도 빠지지 않고 기도 정진을 했다”며 “기도하는 동안 부처님의 가피로 포교를 위한 터전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터전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천일기도를 시작하기 전 인혜 스님은 인도 성지를 방문하고 포교에 대한 원력을 세웠다.

그 후 현재 바라밀 선원 인근에 300평 규모의 땅을 마련하고 현재 불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바라밀선원은 2차 ‘창건불사 천일관음기도 일제’를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하성미 기자



김해 바라밀선원 주지 인혜 스님이 2월 21일 열린 천일기도 회향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응공조계종 지역에 기부활동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범운)은 2월 24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면사무소(면장 박용문)에 쌀20kg 30포, 휴지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기부’로 전달된 쌀과 생활용품들은 지역 불우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달식을 갖는 응공조계종은 이날 종정 범운스님과 지암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부설 영남전통 범음·법대 교육원(강주 범운)은 2월 25일 제 9기 1년 교육과정 인성주 관음사 지암 스님 외 9명 스님들의 수료식을 동행사 대웅전에서 가졌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응공조계종은 2월 24일 칠곡군 약목면 면사무소에 쌀20kg 30포 등을 전달했다.

“부산불교 호법신장이 되겠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2월 22일 108인회 결성

부산 불교 재가 지도자들이 모여 108인 결성법회를 봉행하고 부산불교를 호위하며 구심점이 될 것을 서원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108인회 발대식이 2월 22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됐다. 108인회에는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조영득 안국선원 신도회장, 김동열 미륵사 신도회장, 박영병 부경대 명예교수, 이영숙 코모도회장 등 경제·사회·문화·신도·교육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로 구성됐다.

108인회 발대식은 인사말(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경과보고(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사무총장) △108인 발대선서 △108인 회원증서 수여 △격려사(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순으로 진행됐다. 선서문을 통해 108인회 회원들은 부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108인회를 조직하고 부산불교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을 발원했다.

산불교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할 것과 삼보 호지에 관한 모든 사업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부산불교의 위상과 부처님의 자비실현을 위한 봉사도 아울러 담당할 것을 선서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은 “기존 불교지도자들과 함께 108인회 여러분들이 부산을 명품 불교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며 “발대식을 토대로 환골탈태하여 연합신도회가 재도약하고 불교지도자로서 부산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활동을 하자”고 당부했다.

수불 스님은 격려사에서 “수행하는 재가자의 모습으로 부산불교연합회 회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해서 깊은 신심을 토대로 모두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꾸준한 활동으로 부산 뿐 아니라 전국의 불교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교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으로,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제 2기)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 회장, 꼴관상 신기원 교수, 학선 유래용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청화학술 박청학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신석우박사, 김인순박사, 김민재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힐링특강-가수 김태곤 박사

대상	명리학 초중급자, 헌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입학식	3월 31일(목) 18:00 ~ 미래학특강(미래로 보는 세상)	수강료	240만원
일정	3월 31일 ~ 7월 14일, 15주과정, 매주 목(木) 18:30~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과정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수강료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